

도미니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49천 Km ²	G D P	521억 달러(2010년)
인구	9.6백만 명(2010년)	1 인 당 GDP	5,429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Dominican Peso(Ps)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주의	환 율(달러당)	36.88(2010년)

- 카리브해 서인도제도의 히스파놀라 섬 동부 2/3를 차지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은 인구 9.4백만 명, 1인당 GDP 5,429 달러의 중소득국임.
- 2003~04년에 국내3위 은행의 파산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2004년 8월 페르난데스 신정부 출범 이후 수출과 외국인투자 증가, 관광업 호조 등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음.
- 2008년 5월 대선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연임중이나, 내수 경기 위축, 실업률 및 물가 상승, 치안 불안 지속, 부패 스캔들 등으로 인해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 후 양호한 경제성장세 시현

- 도미니카(공) 경제는 2003년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물가안정과 더불어 관광산업, 통신업 등 주력산업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를 지속해 왔음.
- 2008년에는 인플레이 우려와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전력난 지속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5.3%로 낮아졌으며, 2009년에는 미국과 유럽 경기 침체에 따른 관광업 및 수출 둔화, 외국인투자 축소 등으로 인해 3.5%로 성장률이 더욱 낮아졌음.
- 2010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관광업 및 수출 증가, 아이티 지진 복구사업과 관련한 국제자금 유입 등으로 7.8%의 양호한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2011년에는 농산물, 니켈 등의 수출 증가, 미국 경기 회복으로 인한 관광업 호조 및 해외송금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민간수요와 투자가 약화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 성장률	8.5	5.3	3.5	7.8	4.5
재정수지 / GDP	0.6	-3.8	-3.2	-2.8	-2.0
소비자물가상승률	8.9	4.5	5.8	6.2	8.1

자료: IMF, EIU.

□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지속

- 2007년에는 국제유가와 식료품 가격상승 지속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8.9%로 급상승하였으나, 2008년에는 폐소화 강제와 DR-CAFTA(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억제목표치(6.0%) 이하인 4.5%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내수위축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8%로 상승하였음.
- 2010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아이티 지진복구 사업과 관련한 자금 유입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2%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식료품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물가상승률은 8%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정부의 긴축정책 지속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들어 대선에 따른 선심성 지출 확대, 전력, 교통 등 정부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적자(GDP의 3.8%)로 전환되었음.
- 2009년에는 대외지급 이자 규모 증가, 국가경제회의* 결과 이행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의 3.2%를 기록하였음.

* 국가경제회의(national summit) : 2009년 1월 28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경제위기 타파, 산업발전, 신용경색 해결 등을 위해 개시되었음.

- 2010년에는 외채증가에 따른 대외지급 이자 증가, 전력산업 등 취약산업 보조금 지급 및 아이티 지진복구 사업 지원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IMF가 제시한 기준치(GDP대비 2.4%)를 상회한 GDP의 2.8%를 기록함. 2011년에는 세수증대 및 긴축재정을 통해 적자폭은 GDP대비 2%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대외경제여건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자유무역지대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타 전통 수출 품목은 설탕, 담배, 바나나, 광산물(니켈 등) 등의 1차 산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변동이나 국제원자재 가격 및 기후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로 외국인투자 활성화

- 2004년 8월 미국 및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체결 하였으며, 2007년 3월 발효됨. 동 협정의 발효로 미국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섬유, 통신업 부문 등에 FDI 유입이 증대되고 있는 등 동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미니카(공)은 자유무역지대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수출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출투자청(Centro de Exportacion e Inversiones)을 설립하고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를 운영 중임.
- DR-CAFTA에 대한 기대감, 도미니카(공)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등으로 인해 2003년 6억 달러에 불과했던 FDI는 2008년 사상 최대치인 2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스페인의 경기침체로 2010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약 24% 감소한 1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연간 FDI 유입액 : 17억 달러('07) → 29억 달러('08) → 21억 달러('09) → 16억 달러('10) → 18억 달러('11 전망치)

다. 정책성과

□ 산업다변화정책 추진 중

- 도미니카 정부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업종을 현재의 노동집약적 산업(섬유 등)에서 IT 등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수도 산토도밍고 외곽에 국내외 자본을 동원하여 'Cyber Park'라고 명명된 IT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 부문의 개혁 난항으로 재정부담 가중

- 에너지 부문의 개혁은 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주요 정책 목표이자 국민적 염원이지만 높은 빈곤율로 전기료 현실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전 등에 의한 전력 손실률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전력부문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공영 전력회사들의 대규모 적자 보충 및 최빈곤층에 대한 전기료 보조금 정책 등으로 매년 대규모 정책 자금이 투입되어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음.
- 2008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던 유가 상승세로 인해 화력 위주의 발전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관광업 및 제조업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재정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전문가들은 2009년 초 배전 회사들에 지급한 적자 보전금은 정부가 IMF에 차관 자금을 요청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분석함. 전력 생산과 분배의 실질 원가를 반영하려면 소비자가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정부는 지지율 하락 등의 우려로 요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악화 추세 지속

- 2007년 대미수입 증가 및 DR-CAFTA 국가 및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둔화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5.4%인 약 2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8년에도 수출 감소,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92억 달러를 기록하며,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GDP대비 9.9%로 급증함.
-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수입 감소폭이 커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약 48% 축소된 23억 달러 (GDP의 5.0%)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8.5%로 확대됨. 또한 2011년에는 니켈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대비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세 전망

-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2002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한 때 달러 당 50페소까지 상승하였으나, 페르난데스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말에는 30페소 수준까지 회복하였음.
- 2006-08년 중 달러 당 페소화 환율은 33-35페소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 지속, 해외근로자 송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달러 당 페소화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달러당 환율 : 33.8('06) → 34.3('07) → 35.5('08) → 36.2('09) → 37.5('10) → 38.6('11 전망치)

□ 외채원리금 상환능력 양호

- 2009년 IMF 구제금융 도입(17억 달러)과 경기부양책 실시를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10억 달러) 등으로 인해 최근 외채규모가 2008년 116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55억 달러로 2년 만에 약 39억 달러가 증가하였음.

* 총외채잔액 : 116억 달러('08) → 127억 달러('09) → 155억 달러('10) → 167억 달러('11 전망치)

- 그러나 GDP대비 총 외채규모는 30%미만의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D.S.R.도 10%미만으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11년도에도 8%수준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증가추세

- 2008년 23억 달러를 기록한 외환보유액은 수출증가세와 더불어 2009년 IMF 및 국제기구의 차관도입으로 인해 2010년에는 35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개선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2,225	-4,519	-2,331	-4,435	-6,073
경 상 수 지 / GDP	-5.4	-9.9	-5.0	-8.5	-10.2
상 품 수 지	-6,437	-9,246	-6,813	-8,701	-10,494
수 출	7,160	6,748	5,483	6,598	7,741
수 입	13,597	15,993	12,296	15,299	18,235
외 환 보 유 액	2,562	2,288	2,905	3,502	2,902
총 외 채 잔 액	11,867	11,557	12,702	15,466	16,704
총 외 채 잔 액 / GDP	28.9	25.4	27.3	29.7	26.8
D. S. R.	8.5	9.0	7.3	8.1	8.0

자료: IFS,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08년 5월 대선에서 페르난데스의 연임 성공

- 2008년 5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도미니카자유당(PLD)의 리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여 동년 8월 취임함.
- 2009년 1월 28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경제위기 타파, 산업 발전, 신용경색 해결 등을 위해 국가경제회의(National Summit)가 개최되었으며, 2030년까지의 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하였음.

□ 2010년 총선 압승

- 2010년 5월 16일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도미니카자유당(PLD)이 상, 하원 모두에서 압승을 거둬 총 의석수 215석 중 136석을 차지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매우 커졌음.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물가 불안정, 극심한 전력난 등으로 인해 여당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정국안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 2012년 대선 출마자 내정

- 당초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음. 하지만 현재 여당 지지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대통령이 개헌을 포기하면서 대선에 앞두고 점차 권력을 잃어가는 양상임. 한편, 2011년 6월 26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열린 당내 선거에서 2006년까지 국무장관을 역임한 Danilo Medina가 8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됨. 또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2016년까지 의석의 2/3를 차지하는 PLD당 지도자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심한 빈부격차가 문제이나, 급격한 소요가능성은 낮음

-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고 빈부격차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소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함.
- 2010년 1월 발생한 아이티 지진 사태로 아이티 불법이민자들이 증가 추세이나 현재까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음.

3. 국제관계

□ 실리적 외교노선 추구

-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국제 신인도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이빨리또 메히아(Hipolito Mejia) 전임대통령 집권 당시(2000~04년) 악화되었던 대미관계 회복에 힘써 2004년 8월 미국 및 중미 5개국과 DR-CAFTA 체결에 성공하였으며, 수출 진작 및 FDI 유입 활성화를 위해 관계 개선 노력에 힘쓰고 있음.
- 또한 2008년 무역·투자 다각화 일환으로 EU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맺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시아·중동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새로운 투자 유치와 연료 공급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음.
- 인접국가 중 아이티와 국경분쟁 및 불법이민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교역 및 국경경비 등에서는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에는 국가전반이 마비된 아이티에 기술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한편, 베네수엘라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힘입어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부터 동국 석유수입량 중 40% 이상을 국제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받기로 확약을 얻어내는 등 실리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09년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 신규 도입

- 공영 전력회사들의 대규모 적자와 빈곤층의 전기사용보조금 정책시행 등으로 정부재정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신종플루 발발 등의 악재로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10%가량 감소하면서 2009년 정부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됨.
- 경기부양책 실시와 경쟁력 구축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 지속을 위해 2009년 1월 IMF로부터 17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IDB 등 주요금융기관들의 대 도미니카(공) 지원계획이 재가동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평가기관 신용도 등급

- 2008년 12월, S&P는 미국 및 유럽 경기 침체 지속,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축소 전망,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반전, 인플레이 우려 등을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지만 2011년 6월 국채구조 향상 및 꾸준한 성장 전망을 이유로 다시 B+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OECD는 동국에 대한 국가신용평가에서 최근 몇 년간 5등급의 동일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2 (2011.7.)	C3 (2010.11.)
OECD	5등급 (2011.7.)	5등급 (2010.6.)
S&P	B+ (2011.6.)	B (2008.12.)
Moody's	B2 (2010.4)	B2 (2007.5)
Fitch	B (2006.5)	B (2011.1)

- Moody's는 도미니카(공)의 외채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관광업 및 수출증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2010년 4월에 기존 B2 등급에서 B1으로 한 등급 상승시킨 이후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OECD : 5등급 ('07. 6) → 5등급 ('08. 6) → 5등급 ('09. 7)
- S&P : B ('05. 6) → B+ ('07. 9) → B ('08. 12) → B+ ('11. 6)
- Moody's : B3 ('06. 10) → B2 ('07. 5) → B1 ('10. 4)
- Fitch : B ('06. 5)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한도범위 내 인수 가능
- 영국 ECGD: 중, 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 06. 25. 수교 (북한과는 2007. 09. 27.)
- 주요협정: 문화협정 ('68), 과학기술협력협정 ('82), 사증면제협정 ('82), 체육교류각서교환 ('83)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5> 한·도미니카공화국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25,550	86,085	148,260	자동차, 철강관, 편직물
수 입	90,169	29,116	55,310	건전지 및 축전지, 합금철산철 및 고철
합 계	215,719	115,201	203,570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4년 이후 수출이 증가하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에는 니켈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규모 확대로 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함.

- 그러나 2008년에는 교역규모가 215백만 달러에 달하고 아연강판,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36백만 달러에 달하였음. 2009년에도 상품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양국의 수입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음.
- 2010년 대도미니카(공) 교역규모는 20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76.7%의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2008년 수준을 회복하였음.

□ 대도미니카(공) 직접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

- 대도미니카(공)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말 누계 기준 14건에 대해 42,070천 달러로 대부분 의류제조 등 제조업 부문에 투자되었음.

V. 종합 의견

- 동국은 2008-2009년에는 미국 및 유럽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과 관광업이 부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10년 이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관광업 및 수출 증가,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7.8%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시현하였음. 2011년에는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사회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미국 뿐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동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등 국제관계의 다변화를 꾀하며 실리적인 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음.
- 도미니카(공)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출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정부의 개혁의지가 강하며, 타 중미국가와 비교할 때 양호한 거시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음. 총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D.S.R도 10%미만으로 외채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문의 : 조사역 최철영(☎3779-5720)

E-mail : cychoi@koreaexim.go.kr